

의 대표 학회로서 이루어 놓은 결과에 대해 필자는 매우 찬사를 보낸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학회 회원뿐만 아니라 좀 더 대외적인 위상을 강화하여 정치·사회적, 교육적 순기능을 담당하는 것이 21세기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한국영어교육학회의 역할을 대외적, 학회 간, 그리고 교육자 개인역량 강화의 측면에서 나누어 기술을 했다. 이런 제언은 비록 필자의 짧은 경험이나 지식을 바탕으로 우리 학회가 앞으로 꼭 지향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생각되어 제시한 것이지만 여러 집단 및 구성원 간의 합의나 노력이 있어야 하는 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운 과정이 많이 있으리라 본다. 하지만 아무리 어려운 큰 변화도 누군가 시작을 하고 작은 노력을 시작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 글을 쓰면서 필자도 자신부터 변화의 움직임에 동참을 해야 함을 깨달았다. 아무리 시스템을 바꾸고 사람을 바꾸어도 각 학회의 각 구성원인 개인의 생각과 행동이 변하지 않으면 진정한 변화와 발전은 어려운 법이다. 교육은 한 개인 교사의 질을 뛰어넘을 수 없듯이 학회의 질도 내가 먼저 변화의 주체가 될 때 비록 좀 느리더라도 결국은 놀라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 바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 이런 다짐을 스스로 하면 좋겠다.

회원 추억담 '나의 KATE 이야기'

KATE 학회 활동을 했던 회원님들의
소소한 추억담들을 사진과 함께 모은
사진 블로그입니다.
학술대회 준비, 학술발표 등에
얽힌 이야기들을 소개합니다.



학문적 독립성을 확립하기 위한 80년대 중반,
그리고 86년 겨울 학술대회에서의 나의 첫 데뷔



1980년대 중반까지 영어의 분야는 문학과 어학의 이분법적 사고로 나누어져 있었고, 그 때문에 영어교육은 그저 상식적인 경험에 의해 수행할 수 있다는 묵시적인 접근이 영어교수들 사이에 팽배하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일례로 1986년 6월 28일 서강대학교에서 개최된 CETA 학술대회에서 '영어교육의 전문성'에 대한 주제발표 및 토론을 가졌는데, 당시 참가한 모 교수는 대학의 영어교수들은 영어교육을 상식적인 차원에서 중등교사와 같은 일선에 맡기고, 영어교육의 전문성을 위해서는 영어학의 이론 및 원리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던 기억이 난다. 그 당시 영어 관련 대규모 학회는 '한국영어영문학회'와 '한국언어학회'가 양축을 이루었고, '한국영어교육학회'는 규모가 작았고 전문성이 갖

추어져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었다.

그러나 CETA의 창립 20주년을 즈음하여 84년 공영일 회장의 취임과 함께 영어교육학회는 본격적인 독립성을 확보해나가기 시작하였다. 우선 학술지 편집장으로 정동수 교수(서강대)가 임명되면서, 당시 임원진들과 협의하여 영어교육 학술지에는 영어교육에 관한 논문만 게재하고, 언어학과 문학 분야는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이에 따라 1986년 2월 발행된 '영어교육' 학술지 31호부터는 순전히 영어교육 분야의 논문만 게재되었고, 또한 이후 학술대회에서도 영어교육 분야의 전문성 있는 발표만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영어교육의 전문성 고양은 그 당시에는 학회 회원이었던 역대 회장님들의 신신하면서도 전문적인 영어교육의 발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1985년 겨울 학술대회(2월 15일, 미국문화원)에서 이흥수 교수의 '선행지식 구조이론과 독서'(Schema theory and reading), 1985년 여름 학술대회(7월 6일, 동국대학교)에서 전병만 교수의 '언어능력 평가에 있어서 Cloze Procedure의 연구', 1986년 겨울 학술대회(2월 15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이효웅 교수의 'The role of affective factors in FL learning'는 당시 대학 영어 교수들에게 영어교육 원리에 대한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또한 영어교육의 전문성을 한층 고양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본다.

필자도 1986년 겨울 학술대회의 아침 첫 순서로 'Communicative Approach가 의미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CETA 학술대회에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또한 학술지 31호(1986년 2월)의 첫 번째 논문으로 'Communication으로서의 영어교육'을 게재하였다. 이러한 전환기에 영어교육 논문 게재와 학술발표를 통하여 영어교육의 전문성을 고양시키는 데 일조할 기회를 가졌던 것은 영어교육을 전공한 필자의 큰 자부심이다. (이영식, 한남대학교)

KATE 발표를 열심히 준비하시던 우리 교수님의 모습...

1996년도 대학교 3학년 때 일이 었다. 영어교육과라 우리끼리 프리젠테이션과라고 부를 만큼 많은 발표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고인이 되신 김은주 교수님께서 시간강사로 나오실 때 수업에서 늘 앞자리에 앉으면서 영어발표들을 많이 하곤 했었다. 어느 날 교수님이 저와 다른 친구를 남으라고 하면서 따로 교실로 부르셨다. 그리고는 “영어교육학회에서 중요한 발표를 하게 되었다고, 내가 한번 해 볼 테니, 내용도 읽고 코멘트가 있으면 해 달라”고 하셨다. 아직 학부생인 입장에서 영광스러운 부탁이기도 하여, 눈을 반짝이며 노력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지금은 나도 박사과정을 마치고, 대학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이 되고, KATE는 내게 익숙한 학회가 되었지만, 학부생에게는 어마어마해 보였던 영어교육학회, 그 때의 느낌과 장면이 지금도 가끔 생각이 난다. (박은영, 감리교신학대학교)

빵튀기의 추억



2001년도로 기억된다. 여름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던 바쁜 어느 저녁... 집에 가는 길에 빵튀기 전문점을 발견... ‘아... 학회 간식으로 좋겠다!’ 생각하며 떡국 떡 슬라이스를 빵튀기한 것을 한 자루 샀다. 당시엔 일반적으로 먹던 동그란 빵튀기와는 차별되는 새로운 모습이었다. 학회 당일... 바구니에

이쁜 천을 깔고 새로운 모습의 빵튀기를 채워 놓으니 모두들 정체 모를 스낵에 관심을 가졌다. 너도 나도 집어 들며... 즐거운 표정... ‘low calorie... healthy snack’이라는 작은 팻말에 외국학자들도... 학술대회에서 먹어 본 간식 중 최고라며 칭찬! 지금은 학회 간식이 풍요롭지만 당시엔 최소한의 간식 정도만 준비하던 때라 돈 별로 안 들고 많은 참석자들이 먹고 또 먹고 남을 정도의 풍요로운 간식 테이블은 즐거운 추억을 남겨주었다. (전지현, 이화여자대학교)

신문사에서 협찬을 얻어낸 우산 비닐

해마다 여름 국제학술대회 준비를 할 때엔 장마철이라 비가 올까 염려된다. 2001년도... 임원진이 처음 맡은 여름 국제학술대회... 손님 맞을 준비로 일찍부터 부산했던 그 아침... 학회 시작을 앞두고 비가 많이 내리기 시작했다. 당시만 해도 우산비닐이 흔하지 않던 시절이라 비가 오면 어찌 준비할지 난감했던 시절이었다. 우선은 우산을 깨끗이 씻을 통을 마련해야 했고, 우산에서 떨어지는 빗물에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하려면 누군가 바닥을 수시로 닦거나 천을 깔아야 했다. 난감하던 중... 갑자기 비오는 날 신문이 비닐에 쌓여 배달되는 것을 떠올리고 신문사에 전화를 걸어 비닐 협찬을 얻어내었다. 비닐 덕분에 비가 오는 상황에 대해 속 타던 우리는 더욱 준비된 모습으로 손님을 맞을 수 있었다. 지금도 비오는 날 배달된 신문을 보면 그날을 떠올려 보곤 한다. (전지현, 이화여자대학교)

안식일에는 버스도 마이크도 안됩니다...



2002년 여름 KATE 학술대회는 부산 BEXCO에서 6월28일에서 29일까지 금, 토요일에 개최가 되었다. 당시 부회장이었던 나는 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기조강연자였던 이스라엘의 Benard Spolsky 교수 때문에 당황해 하시던 이효웅 회장님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다. 문제의 발단은 종교였다. Spolsky 교수는 유대교인이었다. 유대교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이날에는 어떤 교통 수단도 이용하지 않으며 공식적인 자리에서 토론이나 발표 등을 위해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한다. 일을 하면 안 되는 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이다. Spolsky 교수는 기숙하는 해운대 Hyatt 호텔(현재는 Novotel)에서 BEXCO까지 셔틀 버스나 택시 등 어떤 교통 수단을 이용해서도 갈 수

없다고, 또한 토요일 마지막에 예정되어 있는 전체 국외 초청 학자 모두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panel discussion)에서 마이크를 사용해서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유대교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었던 임원진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 해결책은 모두 이효웅 회장님에게서 나왔다. 토요일 아침과 저녁 학술대회장인 BEXCO까지 그리고 다시 호텔까지 걸어서 이동하기로 한 것이었다. 그럼 어떤 임원진이 같이 걸어갈 것인가의 문제가 남게 되었다. 걸어서 1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를... 다행히 한국해양대학교에 재학 중이던 이효웅 회장님 차남이 학술대회 도우미를 자원해서 봉사했는데, Spolsky 교수와 같이 걸어서 이동하는 도우미를 자원하여 간신히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었다. 토요일 공개 토론회에 Spolsky 교수가 참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누구의 묘안이었는지, Spolsky 교수 자신이 제안했었던 것인지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일단 단상에 올라가되 토론에 참여는 안 하는 것으로 Spolsky 교수와 합의하게 되어 겨우 Spolsky 교수가 단상 테이블에 다른 국외 초청 학자들도 함께 앉아 있는 모습을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볼 수 있게 되었었다. 2002년 학술대회에 참석하였던 일반 회원들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몰랐을 것이다. 당시 학술대회를 준비했던 임원진들에게도 생각하지도 못한 변수였지만 한국에서 개최되는 학술대회에 처음 참석하는 Spolsky 교수의 적극적인 참여 의사, 이효웅 회장님 차남의 도움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학술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던 기억을 다시 떠올려 본다. 나도 모르게 그 때 참 그랬지 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 (최연희, 이화여자대학교)

쏟아지는 편집업무를 마치고 멋진 양평 나들이를

2000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KATE 19대 편집 업무를 담당한 임원진들은 호당 2회씩 학술지 교정을 위해 성수동에 위치했던 한국문화사 사무실에서 토요일을 보내야 했다. 그 당시 한국문화사 사무실은 독섬역 근처 자그마한 건물의 2층에 위치한 20여 평되는 곳이었는데 편집 업무를 마치면 근처에 점심이나 저녁을 먹을 마땅한 장소가 없었다. 그래서 당시 편집위원장이셨던 현 최연희 회장님께서 2차 교정까지 마치는 날에는 강남의 음식점을 섭외하여 편집 업무에 참여한 모든 이사들에게 맛있는 음식 탐방의 기회를 제공해 주셨다. 매번 성수대교를 넘어서 강남까지 갔지만 당시엔 귀했던 홍콩식 중국요리, 베트남식 퓨전 요리 등등을 맛보는 호사를 누리서, 학술지 편집, 교정 업무로 지치는 토요일에 큰 위로가 되고는 했다. 특히 한국 학술진흥재단(현 연구재단)에서 처음 시작한 학술지 평가, 국제학술지 지원 사업 신청 등 19대 편집진은 끊임없는 업무로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지만, 첫 여성 편집위원장을 도와주시기를 자원하셨던, 전임 편집위원장님들, 서울대 김진완 교수님, 숭실대 박준언 교수님이 비공식적인 편집 간사로 참여하여주셔서 즐겁게 업무를 하였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특히 마지막 업무였던 57권 2호 편집을 마치고 난 후에는 모두 양평의 소호 갤러리로 문화, 경치, 음식을 탐방하는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유제명 이사님께서 운전을 하시고 한 차에 모두 타고 양평으로 뺨 달려가서 최연희 편집위원장님께서 섭외한 소호 갤러리에 갔는데, 마침 이 날이 음악회가 열리는 날이어서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 연주를 전시되어있던 그림과 함께

감상할 수 있는 멋진 시간을 가지게 되었다. 우리는 북한강을 지그시 바라보며 언제 독섬역 작은 사무실에서 학술지 편집 업무를 하면서 찌들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우아하고 멋진 토요일을 보냈고, 그 시간들은 지금도 소중한 추억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 날 찍은 사진을 보면서 다시 그 날의 추억과 함께 2년간 했던 그 많은 학회 학술지 편집 업무를 다시 떠올려보게 된다. (문영인, 서울시립대학교)



Holy cow! The 4th KATE-YBU Conference, 2006

The 4th KATE-YBU(Yanbian University) Conference on English Language Education was held on August 5, 2006 at Yanbian University. The then President of KATE, Professor Kyoung-seok Ko gave an opening address and Professor Zhang Zhen-ai Zhang welcomed us to the Yanbian University campus. For this conference, the then President of the English Linguistics Society of Korea (ELSOK), Professor Kee-Ho Kim and a few members joined us as did our sponsor English Mou Mou CEO Mr. Seong Su Kim and staff. There were 18 paper presentations by both sides by professors and graduate students,

The first picture is the cover of the proceedings of the Fourth KATE-YBU Conference on English Language Education-Linguistics and English Education. The papers still resonate today even though they are almost a decade old. The second picture is a formal picture of all the conference attendees on the steps of one of the Yanbian University's building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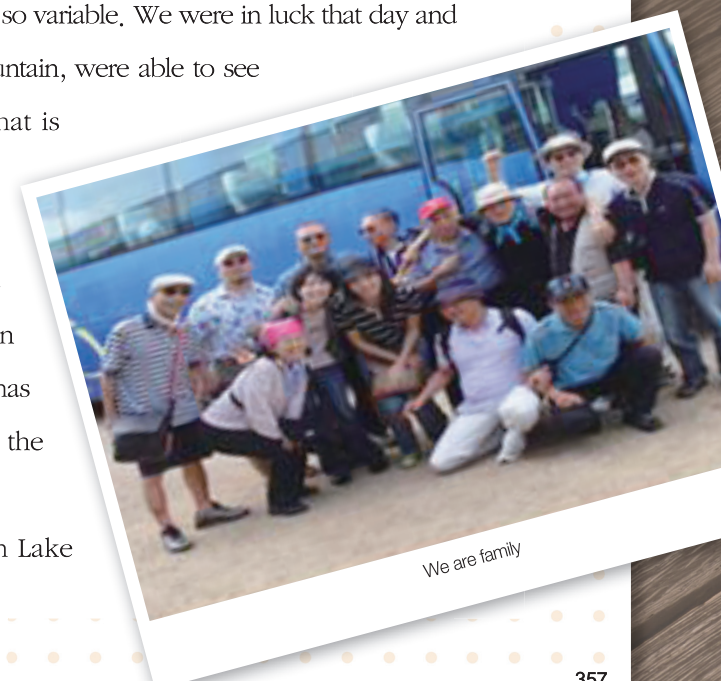
The third picture is of a few of the attendees from



All in rows

the Korean side getting ready to board a bus to take us to the Chinese side of Baekdu Mountain which also borders North Korea. People say that you have to be extremely lucky to see Heaven Lake, the crater lake atop the mountain, since the weather is so variable. We were in luck that day and after a rickety ride up the mountain, were able to see the vast expanse of water that is Heaven Lake. I am the one in pink with the pink bandana on my head. Former KATE President, Professor Byung-Man Jeon gave out colorful bandanas which came in handy during the trip.

However, being at Heaven Lake



We are family

was not the most memorable moment of this trip. After we came down from Baekdu Mountain, we had planned to have a feast. We literally ordered a cow to be slaughtered and cooked for us. So upon reaching the restaurant, there were plates galore of all the parts of the cow on them. Some parts, like the liver, were uncooked! As can be expected when eating raw food, people got sick and some even had to be hospitalized! Luckily people quickly recovered and we had a safe trip back home.

The Yanbian University professors are old, enduring, and endearing friends of KATE and come to our annual international conference. Exchange is always a good thing and the more members in the KATE family, the merrier! (Hikyong Lee, Korea University)



오, 천지!.....

2007년 7월 하순, 연변대학교에서 열린 KATE-YBU 공동 학술대회 참가할 때의 일입니다. 당시 고정석 회장님과, 전임회장이신 전병만 선생님, 임원진들과 함께 연변대학에서 공동 학술대회를 가지고 북경과 백두산을 여행했었습니다. 한국인이라면 누구라도 천지를 보는 순간 벽찬 감동으로 눈물을 흘린다는 그 장엄한 풍경을 기대하며

연길에서 무려 9시간, 이틀에 걸친 긴 장정의 피로함을 견딜 수 있었지요.

그러나 새벽잠을 설치며 5시경 출발, 긴 버스 이동 끝에 북파를 통해 지프차를 타고 짙은 안개 속을 헤치며 위험천만한 곡에 운전 후 도착한 그곳은 백두산인지 천지인지 하늘인지 구름인지 땅인지 도대체 아무 것도 구분할 수 없는 그저 짙은 안개 속에 험한 비바람만이 몰아치는 황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가져간 모든 옷을 겹겹이 끼입어도 얇은 우비 속에서 추위에 몸이 떨리는 날씨 속에 KATE 임원들은 짙은 아쉬움 속에 기념사진 한 장 찍고 발길을 돌려야했습니다. 3대가 덕을 쌓아야만 볼 수 있다는 맑은 천지 풍경, 끝내 내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호사였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30여분 동안 혹시나 안개가 걷힐까 기대하며 호수 경계조차 가늠되지 않는 비바람 속에서 서성서릴 때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단순히 천지를 못 본 아쉬움의 눈물만은 아닐 것입니다. 모두들 허탈함을 달래며 산을 내려오면서 자작나무 숲길과 장백폭포, 그리고 간헐온천에 익혀 먹는 달걀 등을 기억에 담았습니다. 또한 지프차를 타고 비탈길을 아찔하게 내달릴 때 창밖으로 보이던 이름 모를 들꽃들의 흐드러진 아름다움을 잊을 수 없습니다. 차에서 내려가 한 번 카메라에 담아보고 싶었지만 좁은 외길 오르막길에서 그것은 애초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지요.

여행 내내 많은 사랑을 받았던 젊은 조선족 가이드 아가씨는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들처럼 천지에 몇 번을 오르기도 보지 못한 어느 여행자가 아쉬운 마음으로 지었다는 시를 구성지게 암송하여 우리를 감탄시켰던 기억이 납니다. 경인교대 박약우 선생님께서 그 시를 받아 적으셨다가 천지에서 찍은 단체사진 배경에 시를 새겨 우리들에게 보내주셔서 무척 감동을 받았었는데 아쉽게도 그 사진을 제 앨범에서 찾을 수가 없네요. 아무튼 잊지 못할 추억이었고, 함께 할 수 있었음에 감사합니다. (조정순, 건국대학교)

연변 학술대회 추억... 우정과 감동을 나누는 시간들

한국영어교육학회는 학회로서 당연히 갖추어야 할 학문적 탁월성뿐만 아니라 함께 학회를 꾸러가는 구성원들에게 진한 우정과 감동을 나누어준 학회입니다. 고경석 회장님과 함께 한 2007년 YBU-KATE 학술대회(7월 26~30일), 제게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값진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학술발표 일정과 더불어 이루어진 여행코스들... 자금성, 이화원, 만리장성, 백두산 등 정말이지 큰 기대하지 않고 따라갔던 여정이었는데 가끔씩 그 때의 사진들을 꺼내보며 혼자 미소를 짓습니다(그 때의 사진들 몇 장 올립니다). 지금도 가슴 속에 오랫동안 소중한 추억으로 남는 이유는 회장님과 함께 한 이사님들의 따뜻한 마음이 금방이지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고경석 회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이사님들~ 다들 보고 싶어요! 연변 학술대회를 후원



해 주셨던 잉글리쉬무무 사장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원으로서, 임원으로 함께 한 인연을 제공해 준 한국영어교육학회에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표경현, 단국대학교)



25대는 총무가 두 명?



이미 자매학회의 회장을 역임하셨던 오준일 회장님을 모시고 제 25대 총무라는 중책을 맡기로 한 것은 매우 훌륭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한다. 평소 구수하고 박력 있는 경상도 사나이라는 회장님의 이미지는 제 1회 상임이사회부터 깨지기 시작했다. 학회 홈페이지를 살살이 뒤져서 모든 오타를 잡아내시고 주소록, 회의록의 오타까지 밤새 작업하셔서 총무에게 넘기신다. 헐, 이 분은 박력 있고 시원한 경상도 사나이가 아니고 꼼꼼하고 세심한 전직 한국영어교육학회 총무 출신이었다는 걸 깜박한 것이다. 많은 순간 그분의 세심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 능력에 놀랐다. 주위 사람이 피곤하지 않을 만큼 지적을 하시면서 몸소 알아서 많은 일들을 직접 하신다. 총무 일이 많거나 고되다기 보다는 하나라도 때를 놓치면 학회에 중대한 누를 끼칠 수가 있는지라 늘 긴장해야 하는데, 내가 행여 잊고 있을라치면 미리 전화를 주시거나 넌지시 임무를 주신다. 사실 25대는 총무

가 두 명인 셈이었다. 그렇게 총무 2년의 시간은 큰 부담 없이 흘러갔고 기록에 남을 만한 큰 사고는 안친 것 같아 매우 다행스럽다. 많은 부분 초보 총무를 잘 보조해 주신 회장님 덕이 크다. 물론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줌마클럽 교수님들, 그 여성분들이 식사 후면 남아서 수다로 커피 잔을 채우고 있으면 차분히 이를 지켜보시고 같이 웃어주시던 젠틀맨 교수님들, 그분들의 무한한 협조와 지원 때문인 것도 말할 필요가 없다. 지금도 청계천의 랜드마크 빌딩 안의 카페가 그립고 그 커피와 초콜릿향이 아련하다. (이희정, 연세대학교)

KATE의 매 순간이 역사다

KATE 50주년 기념집 제작팀에서 김혜영 부회장님은 총괄 기획과 모든 원고의 의뢰 및 편집을 도맡아 하셨고, 나는 각종 사진, 임원진 명단, 학회 회칙, 학술대회 프로그램북, 편찬물, 학회 연혁 등 KATE의 지난 50년 동안의 발자취를 보여주는 자료를 수집하는 일을 담당했는데, 이 작업을 하면서 나는 사학자의 어려움과 보람이 어떤 것인지 가늠할 수 있게 되었다. 초창기 자료는 거의 구할 수 없었고, 쉬이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했던 비교적 최근의 자료들도 한참을 수소문해야 찾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연히 새로운 자료와 조우했을 때, 그리고 오랜 시간 찾아 헤매던 자료를 발견했을 때 느끼는 기쁨은 보물이라도 찾은 것처럼 짜릿했다.

부족하나마 이만큼의 자료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온전히, 지금까지 KATE와 관련된 자료들을 귀하게 간직하고 정리해 오신 몇몇 분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이홍수 전임회장님께서 정리하셨던 KATE 40년사와 이영식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신 학술대회 상세목록은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데

귀한 길잡이가 되어 주었고, 김충배 전임회장님과 권오량 전임회장님께서 제공해 주신 사진들과 뉴스레터는 90년대 KATE를 볼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귀한 기록이었다. 최연희 회장님은 KATE 기록보관소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가장 많은 학술대회 프로그램북과 각종 자료들을 제공해 주셨고, 이재희 교수님은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1회와 2회 SIG 자료집을, 박주경 교수님은 마지막까지 구하지 못했던 다수의 프로그램북과 뉴스레터들을 보내 주셨다. 김영우 교수님은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의 학술대회 및 이사회 사진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보내 주셨고, 전임 총무이사이신 박선호, 성기완, 전지현, 이희경 교수님과 현 총무이사이신 송민영 교수님께서도 임기별 사진들과 자료들을 꼼꼼히 챙겨 주셨다. 그 밖에 일일이 다 열거하지 못하지만 번거로운 요청 마다하지 않으시고 기꺼이 자료를 찾아 보내 주신 많은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와 경외의 마음을 전하고 싶다. 이미 많은 기억들과 자료들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버렸지만 이만큼이라도 자료를 모을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분들 덕분이다.

버리는 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오늘 KATE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소한 모든 일들이 KATE의 역사이고 그 기록들을 잘 정리하고 간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잊고 있었다. 부디 KATE 60주년, 70주년에는 더 알차고 풍성한 자료들이 차곡차곡 잘 정리되어 있기를 소망한다. 마지막으로 기념집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 준 김승수, 김미소 조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진화, 중앙대학교)



한국영어교육학회 50년의 기록

Records of KATE 50 Years

- 1
학회 회칙
- 2
역대 임원진 명단
- 3
학술대회 개최 실적
- 4
한국영어교육학회 우수논문상
- 5
뉴스레터 발간 실적